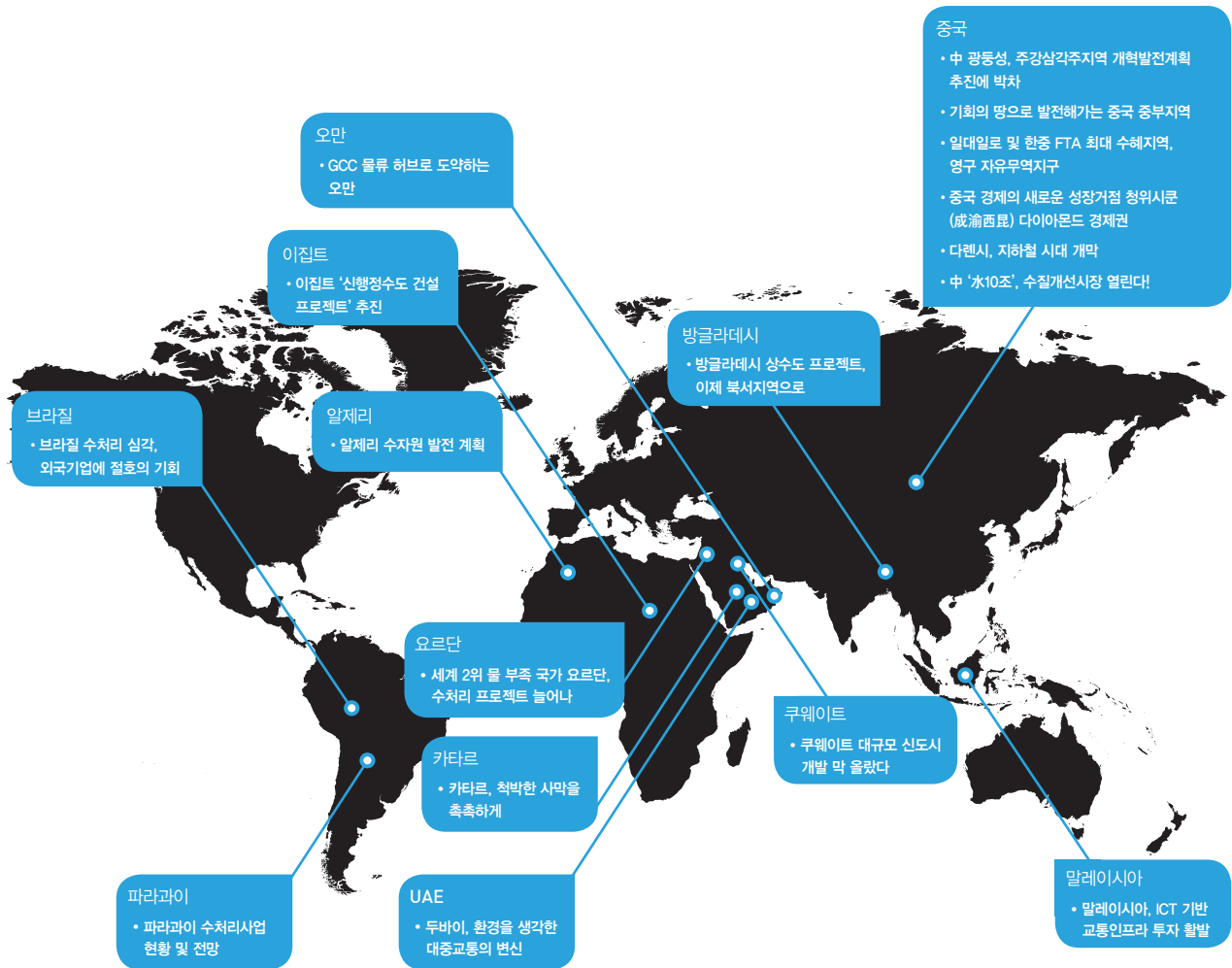


세계인프라 시장 동향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본 내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해외시장포털정보사이트인 globalwindow.org의 최신 정보를 관련기관 협의아래 일부 발췌하여 정리



도시개발/도시계획

中 광둥성, 주강삼각주지역 개혁발전계획 추진에 박차

지난 5월 18일, 광둥성위원회 및 광둥성정부는 광저우에서 주강삼각주지역 개혁발전계획 사업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올해로 시행 7년차에 접어든 주강삼각주 개혁발전계획은 광둥성의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포산(佛山), 장먼(江门), 둥관(东莞), 중산(中山), 후이저우(惠州), 자오칭(肇庆) 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중심으로 한 주강삼각주지역에 산업과 금융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현대화 서비스업과 선진 제조업을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중국 최대의 통합 경제권을 건설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는 △홍콩-주하이-마카오를 연결하는 강주아오(港珠澳)대교 건설(2016년 완공 예정) △주강삼각주지역과 홍콩 간의 위안화 무역 결제 △약 1,000억 위안 규모의 주하이시 남쪽의 형진다오 개발 △주강삼각주 11개 도시(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환전 없이 사용 가능한 E-money 카드시스템 개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주강삼각주지역의 연간 GDP는 5억 8,000만 위안에 달했으며, 인당 연간 GDP는 10만 위안을 초과하였다.

실시 7년차를 맞이하여 발표한 주강삼각주지역의 개혁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는 △첨단기술기업양성을 통한 개혁발전의 추진 △최고 수준의 자유무역 시범구 건설을 통한 대외개발 플랫폼 수립 △선진제조업 발전의 가속화 △첨단기술기업양성을 통한 개혁발전의 추진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을 통한 산업발전의 우위 선점 △가공무역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 및 질적으로 고도화된 경제 구축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광둥성 발전개발위원회와 광둥성 경제정보화위원회에서는 각각 43,285억 위안과 1,468억 위안을 투자하였으며 광둥성 상무청에서는 해외무역과 마케팅을 위해 40개의 항공노선을 증설하였다.

지역별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포산시에서는 주강 서안의 선진장비 제조산업을 중점으로 광에너지, 신재료, 현대 서비스업, 신의약, 에너지 절약, 에너지 차량 등 6대 전략

적 신흥산업 클러스터를 운영을 추진 중이다. ‘포산 제조업 2025계획’의 하나로 화남 지능로봇 혁신 연구원과 인터넷 플러스 연구원을 건설하여 중국 온라인 제조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둥관시는 ‘둥관 제조업 2025’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로봇, 스마트폰, 전자비즈니스 등에 특화된 중국의 제조 시범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산시에서는 다양한 혁신을 통한 지역의 풀뿌리 경제 발전과 첨단기술산업 플랫폼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상생태문명 시범도시’로 평가되는 후이저우시에서는 2017년까지 주강삼각주지역의 제2세대 지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소강사회 건설에 힘쓰고 있다.

광둥성은 주강삼각주지역 개혁발전계획의 시행으로 가공 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과 내수 중심으로 경제구조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2020년 주강삼각주 경제권의 서비스업 비중은 GDP의 6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도 각 도시의 장점을 통합한 메트로폴리스 구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역별 특수성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바 국내 기업도 각 도시의 특화 부분을 고려하여 신기술 및 하이테크 분야로의 진출을 고려해볼 만하다.

자료원 : 광저우일보(广州日报), 만성일보(羊城晚报) 및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김태화(광저우무역관)

2015-06-01

기회의 땅으로 발전해가는 중국 중부지역

후난성 상장(湘江)이 지난 5월 중국 중부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국가급 신구로 정식 승격되었다. 국가급 신구란, 1992년 개혁 개방 이후 국가 개발을 위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설립한 ‘새로운 구역(신구, 新区)’으로, 국무원이 직접 지정하며 토지, 금융, 세금 등 여러 방면에서 우대정책을 실행해 해당 구역의 개혁을 추진하는 지역이다. 현재 상하이 푸둥, 텐진 빈하이 신구를 포함하여 11개의 국가급 신구가 있으며 후난성 상장은 12번째 국가급 신구이다. 후난성 상장신구는 상장신구 내의 국가급 혁신 기술 플랫폼과 국가급 단지의 과학기술자원을 활용하여 국내의 중요한 전략적 신흥 산업기지와 중부지역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평가된다.

후난성 상장신구 내부에는 금융서비스와 문화, 상업, 관광 등 서비스업에 중점을 둔 '상장 서안 현대 서비스업'과 푸젠, 후난, 충칭, 쓰촨을 잇는 319 국도를 중심으로 한 '319 국도 전략성 신흥 산업'이라는 2개의 발전노선과 혁신기지, 선진 제조업 발전기지, 본부경제 기지, 관광 휴양 기지, 현대 도시 농업 시범기지 등 5가지 발전기지가 구성되어 각종 연구와 사업이 실행될 예정이다.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5년 오픈 예정인 진차오 국제도시가 있다. 후난성 상장신구에 위치한 계획도시인 진차오 국제도시에는 ① 지하철 2, 10호선 ② 위장샤(渝长厦)고속철도 ③ 장웨이(长岳), 4개의 도시철도(城铁) ④ 시외버스센터 네 가지의 교통노선이 한곳에 모이는 진차오 허브(hub)역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북부의 베이징부터 남부의 마카오를 연결하는 징주고속도로(京珠高速公路)를 포함하여 4개의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물류센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진차오 국제도시에는 무역, 물류, 전자상거래, 금융, 국제 사무 등의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요식, 관광, 레저, 문화, 교육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

후난성 상장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메이시후 본부 경제구(梅溪湖总部经济区) 등의 경제구 건설로 국내의 기업 본부 및 연구개발센터, 마케팅 센터의 유치가 장려되어 한국 기업 또한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 신화왕(新华网), 진차오(金桥), KOTRA 청사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마리사(청사무역관)

2015-06-03

일대일로 및 한중 FTA 최대 수혜지역, 영구 자유무역지구

지난해 랴오닝성 인민정부에 의해 중한 FTA 시범구 설립을 승인받은 영구 자유무역지구가 지난 2월 중-한 FTA 타결로 일대일로 및 한중 FTA 최대 수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구시는 2009년부터 후진타오 전 주석은 물론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등이 여러 차례 시찰하며 발전에 관심을 표명한 도시로 총면적 268km²에 달하는 지역이다. 이곳에는 영구항과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류를 수속 없이 장기간에 걸쳐 보관 가능한 영구 보세물류창고가 위치해 외국 기업의 물류 운송이 수월하며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 또한, 도

로 개조, 행정 기관 신설로 수출 통로로서의 매력도가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일대일로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현재 몽골, 러시아와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유럽 각지로 해상운송이 가능한 영구항의 입지는 더 강화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구시는 입지적으로도 동북 3성 지역 교통의 요충지로 동북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도시로 랴오닝성 경제의 중심지인 선양시, 대련시와 인접해 수출입 통로로 활용되기 적합하다. 또한, 영구시는 약 39종의 지하광물이 탐사 됨에 따라 풍부한 광물자원을 기반으로 하역 및 재가공 장소로 활용될 계획이다.

영구시는 자유무역지구 홍보를 위해 최근 비치발리볼 선수권 대회, 중국농구연맹(Chinese Basketball Association, CBA), 요트대회 등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하며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서산시와의 교류 협약을 통해 양 도시 간 수출입 교류 활성화를 약속하고 도시 간 항로를 개설한 상태이다.

현재 1,000여 명의 한국 기업가와 100개의 한국 기업이 존재하는 영구자유무역지구의 중요성은 한중 FTA의 진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 일대일로 계획에 따라 중국~몽골~홍콩~유럽으로 이어지는 무역로가 개설 및 확장되면, 다양한 지원정책이 제공되어 세계 물류 운송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 人民网, 中国商务部, 百度百科, Global Economics,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이형진(선양무역관)

2015-05-18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거점 청위시쿤(成渝西昆) 다이아몬드 경제권

2015년 3월 8일, 양회 쓰촨 대표단 제4회 전체회의에서 탕량즈(唐良智) 청두시 시장이 국가 계획 차원의 청위시쿤(成渝西昆) 다이아몬드 경제권 설립 계획을 제의함에 따라 중국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청위시쿤은 청두, 충칭, 시안, 쿤밍이 4개 도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4개 도시를 연결하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경제권은 서부 지역의 혁신적인 협력 발전을 시도하여 중국 동부, 중부, 서부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다.

그림1 청위시쿤 다이아몬드 경제권



자료 :

서부지역의 대표 도시라 할 수 있는 청위시쿤의 2014년 경제총량은 3조 3,506억 8,000만 위안으로, 서부지역 12개 성의 경제총량(약 13조 5,000억 위안)의 약 24.8%를 차지하였으며, 풍부한 자원과 교통, 산업, 과학 기술 분야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청두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장강 경제 벨트의 접점으로 지리상 다이아몬드 경제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청위시쿤 다이아몬드 경제권은 30년 후 남아시아·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며 종합 교통 운송 시스템 건설의 주전장이 될 것이며, 첨단 기술의 집결지 역할 또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남수북조(南水北调), 서전동송(西电东送), 서기동수(西气东输) 등의 국가 프로젝트는 다이아몬드 경제권의 추진에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내후년에는 청두와 시안을 3시간 경제권으로 만들어 줄 시청(西成)여객 열차가 개통될 예정인데, 이는 청위시쿤 다이아몬드 경제권의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위시쿤 다이아몬드 경제권의 형성은 아프로 중국 일대일로와 장강 경제벨트 발전 전략 아래 청위시쿤의 상호연계성을 강화시켜 중국의 경제구조를 기존의 T자형에서 H형의 연동구조로 변화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중국 동부 지역의 인력자원, 자금, 기술 등을 중국 서부로 유입시키고 중국 서부의 천연자원은 중국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예정이다.

자료원 : 成都商报, 华西都市报, 百度, KOTRA 청두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김희수(청두무역관)

2015-05-08

중국 '일대일로' 추진 현황 및 기대 효과

시진핑 주석은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3.5 규획)의 핵심 과제를 지역경제 발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일대일로'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공표하였다.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OBOR)에서 '일대'(一帶)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권'을 나타내며, '일로'(一路)는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해상 협력을 기조로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해 서남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가리킨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7일 카자흐스탄의 한 대학에서 실크로드 경제권과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전략구상을 발표한 이후 2014년 4월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의 구상을 제기하고, 10월에는 아시아 21개 국과 AIIB 창설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4년 11월 APEC 정상회의 동안에 실크로드기금 설립을 선포하고 한국 및 호주와 FTA를 잇달아 논의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체계를 토대로 일대일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대형 국영기업들이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 국내와 해외시장에 동시에 포진할 수 있도록 혼합 소유제와 '정부사회자본합작(PPP)'의 개념을 만들고 고속철도를 추가 개통하는 등 '일대일로'가 전면 시행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림2 중국 육상·해상 실크로드 계획 '일대일로'



자료 : 연합뉴스

일대일로에 대해 계획상 60개 연선 국가 중 50여 개국이 협력 참가에 긍정적으로 응했고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아랍연맹(AL) 등 여러 국제기구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하이 협력기구, 메콩강 경제협력지역과 적극 협력할 전망이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1996년 결성한 지역안보 모임이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새로운 발전동력으로 실크로드 경제권과 상하이 협력기구를 연결하여 안보와 발전을 동시에 구현할 것을 제안하였다. 상하이협력기구는 러시아의 강한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일대일로 건설에 협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메콩강 경제협력지역은 앞으로 육상의 실크로드와 해상의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이미 태국과 총 800여 km에 달하는 고속철 건설을 끝자로 한 '중국-태국 철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고속철을 실현할 예정이다.

자료원 : 券时报网, 21世纪经济报道, 新华网, 企业观察报, 人民网, 南方财富网, 뉴스핌, 주간무역, 한국일보, KOTRA 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

2015-03-04

GCC 물류 허브로 도약하는 오만

지난 4월 개최된 제2차 ‘GCC Supply Chain and Logistics Conference’에서 오만은 ‘비전 2020계획’을 통해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여 오만을 물류 허브 국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만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걸프 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물류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아라비안 해와 인도양의 교차 지점에 있는 오만은 해상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활용하여 항구 중심의 물류산업 육성을 추진해오고 있다. 오만 정부는 늘어나는 해상화물 물동량에 대응해 소하르, 두쿰, 살랄라 항 등을 중심으로 항만 시설의 개발 및 확대를 추진하였다. 소하르항은 2020년까지 연간 약 9,000만 톤의 화물을 취급하는 물류산업의 중심 항구로 개발할 계획으로, 2014년에는 술탄 카부스 항의 무역항 기능을 소하르 항으로 인계하였다. 한편, 무스카트 술탄 카부스 항은 관광항구로 개발될 계획이다. 소하르 항구를 물류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주변의 자유무역지대와 산업단지와 연계하는 방안도 꾀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하르 공항이 개장했고 오만 최대의 도로인 알 바티나(Al-Batinah) 고속도로도 2017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두쿰(Duqm)은 새롭게 급부상하는 산업지역으로 특별경제구역청(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 SEZAD), 수리조선소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16년까지 사무실, 화물터미널 등이 건설되어 걸프 지역과 중동 국가의 대형 화물을 취급하는 주요 항구로 성장할 계획이다.

오만 정부는 또한 물자 이동 및 보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구, 도로, 철도로의 이동이 편리한 지역에 종합 물류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최고계획위원회(Supreme Council for Planning, SCP)와 오만 산업단지청은 사우스 알 바티나(South Al Batinah) 지역에 9,500m²규모의 로지스틱스 에어리어(Logistics Area)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바르카-나칼(Barka-Nakhal) 도로와 알 바티나(Al-Batinah) 고속도로 교차점에 철도터미널, 수리조선소, 창고시설, 주차시설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오만은 그동안 전문 인력의 부족과 까다로운 라이선스

승인 절차 등 물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 오만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자 도로, 철도, 공항 등의 다양한 교통 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원스톱숍(One Stop Shop) 서비스를 통한 통관절차 간편화와 네덜란드 항구도시 로테르담시와의 협약 체결을 통한 물류분야 전문 인력 배양을 추진하고 있다. 오만은 GCC 국가 중 물류산업 분야 후발주자이지만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GCC 물류허브 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은 100km² 규모의 무틀라(Mutlaa) 신도시를 진행하는 한편, 매년 1만 2,000호 주택을 공급하는 목표로 후속 대규모 신도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쿠웨이트 시티 서쪽 인근의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South Saad Al Abdullah) 신도시(60km²)는 2017년에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에는 140km²에 달하는 알 키란(Al Khiran) 신도시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자료원 : 현지 언론(Times of Oman, Muscat Daily) 및 KOTRA 무스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한석우(무스카트무역관)

2015-05-28

쿠웨이트 대규모 신도시 개발 막 올랐다!

쿠웨이트 주거복지청(PAHW)이 40억 달러 규모의 사우스 알 무틀라(South Al Mutlaa City) 프로젝트를 발주함에 따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일, 가스 및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동원될 인구가 아시아 및 인근 아랍계에서 유입되면서 지난 20년간 쿠웨이트 인구는 약 2배가 많아졌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15년 후에는 지금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은 석유가 주 수입원이라는 이유로 택지 개발이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11만 명이 넘는 국민이 주택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 5개년 계획(2010~2014년)에서 쿠웨이트 북부의 실크시티 신도시, 키란(Khiran) 신도시, 무틀라(Mutlaa) 신도시 등 6개의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나 국회-정부 간 갈등으로 진척이 없었다. 하지

만 이번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이 사우스 알 무틀라(South Al Mutlaa)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발주에 따라 우리나라 분당 신도시의 5배 규모에 해당하는 신도시가 쿠웨이트 시티 서북쪽에 개발될 예정이다. 총 4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건설에 약 6~10년이 소요될 전망이며, 총 26만 세대의 자국민 주거단지 외에 학교, 모스크, 소방서 등 공공시설과 주유소, 쇼핑몰 등의 상업시설, 외국인 주거단지가 건설된다.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은 100km² 규모의 무틀라(Mutlaa) 신도시를 진행하는 한편, 매년 1만 2,000호 주택을 공급하는 목표로 후속 대규모 신도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쿠웨이트 시티 서쪽 인근의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South Saad Al Abdullah) 신도시(60km²)는 2017년에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에는 140km²에 달하는 알 키란(Al Khiran) 신도시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자료원 : 쿠웨이트주거복지청 직접 면담, Al-Youm(관보), Arab Times, MEED, Public Authority for Civil Information,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이삼식(쿠웨이트무역관)

2015-05-20

이집트 '신행정수도 건설 프로젝트' 추진

이집트 경제개발 회의(Egypt Economic Development Conference, EEDC)를 통해 깜짝 발표된 이집트 신행정수도 프로젝트가 이집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2015년 2분기 중 본격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 신행정수도 프로젝트는 수도인 카이로의 인구과밀 해결 및 지방 발전 촉진을 위해 카이로 인근에 수도의 기능을 일부 분담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신행정수도는 수에즈에서 80km,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45km 떨어진 지역에 약 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700km²로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 사업비는 450억 달러로 기초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대부분 프로젝트를 외국자본 유치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집트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UAE의 캐피탈시티 파트너스(Capital City Partners)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도시의 기본설계 및 종합계획은 미국의 SOM(Skidmore, Owings & Merrill LLP)사가 맡

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체결한 MOU가 50일 이내에 최종적인 합의를 하도록 명시된 만큼 이집트 정부 및 캐피탈시티 파트너스가 빠르게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레말 파운데이션(Remal Foundation) CEO와 사보르 엔지니어링 컨설팅(Sabbour Engineering Consulting)사의 대표이사 후세인 사보르(Hussien Sabbour)는 이번 신행정수도가 단독 도시가 아닌 수도 카이로의 인구 및 기능을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수도 집중화를 완화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도시계획 컨설턴트 데이빗 심스(David Sims)는 과거 토슈카(Toshka) 신도시의 실패사례를 들며 이번 신행정수도 건설 프로젝트도 다른 위성도시 건설과 같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낼 것이라 비판하였다. 도시계획 연구원인 오미니아 칼릴(Omnia Khalil) 또한 정부의 신도시 프로젝트는 국민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집트 주택부에서는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가 대부분 외자로 개발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개발비용은 들지 않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첫 번째 단계에서만 최소 4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건설 설계, 시공, 병원이나 호텔 등의 기반시설 구축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협력 수요가 예상되는바 관련 기업의 시장진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이집트경제개발회의 발표자료, 현지 일간지,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이해진(카이로무역관)

2015-04-23

대중교통

말레이시아, ICT 기반 교통인프라 투자 활발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11th Malaysia Plan)을 통해 앞으로 5년간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이 진행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도로, 항구, 공항 등 주요 교통 인프라의 활

용도를 크게 증가시켰다. 매해 11%의 도로 길이를 확충하여 도심과 교외 간의 연결성을 강화했고, 교통 체증을 감소시켰다. 항구는 매해 5%의 수화물과 컨테이너 물량 증대, 항공은 매해 6%의 승객 증가와 1%의 수화물 향상을 이루어냈다.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에서는 앞으로 5년간 △대중교통의 연결성과 도시-교외 간 연결성 강화 △교통의 안정성, 효율성, 서비스 강화 △항구의 접근성, 수용력, 운영방식 강화 △운송 산업의 규제 및 제도 강화 등을 목표로하고 있다. 도시-교외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끝랑밸리 지하철(Klang Valley Mass Rapid Transit, KVMRT) 1호선의 숭아이 불로-세만탄(Sungai Buloh-Semantan) 구간과 세만탄-카장(Semantan-Kajang) 구간을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운영할 계획이며, 도심과 교외를 연결하는 52.2km에 달하는 2호선을 2022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또,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 도로의 보수와 안전검사, 항공 내비게이션 시스템 및 공항 기반시설의 강화를 도모하고, 항구 커뮤니티 시스템 개발과 말레이시아 항공 위원회 설립을 통해 항구 서비스와 운송 산업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말레이시아에는 IT를 접목한 교통서비스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말레이시아 주요 통신사인 셀콤(Celcom Axiata Berhad)이 M2M(Machine to Machine) 솔루션을 500개의 택시에 설치하여 택시 안에서 승객들이 미디어 콘텐츠와 WiFi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GPS와 연관돼 교통 시스템에도 일조하였다. 또 62개소의 차량통행량을 자동 분석하여 교차로 신호 주기 최적화를 이루는 지능형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또한 도입하였다. 2016년 2분기부터는 지난 2년간 시범운영 되었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본격화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자 통행료로 대체할 예정이며, 단일통합 전자상거래 지불시스템(ICPS)을 상용화하여 2017년 1월부터 통합된 하나의 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국은 통합전산시스템, MRT, 페낭대교 사업 등 말레이시아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앞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교통인프라 사

업에 국내외의 IT기술 및 장비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과의 협력 증진기회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자료원 : Economic Planning Unit(EPU), 현지·국내 언론보도 등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황유주(쿠알라룸푸르무역관)

2015-06-08

다렌시, 지하철 시대 개막

건설공사 사고, 지질문제로 연기되었던 지하철 2호선이 지난 5월 시험운영에 돌입함에 따라 동북 3성의 대표적인 무역항이자 휴양도시인 다렌시가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맞이했다. 다렌시는 그동안 해안도시 특성상 도심을 해안가를 따라 길게 형성되어 극심한 대중교통 정체를 겪었는데, 지하철의 개통으로 이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렌 지하철 건설 계획은 지난 1987년 수립된 도시계획교통방안 계획에 따라 2009년 심사비준을 통과한 이후 준비단계에 들어가 2012년 연말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2년 이상 연기되다 올해 운영에 돌입한 것이다.

지하철 2호선은 37.5km 길이로 시안로역, 다렌북역 등을 거쳐 운행되며, 시 운영 첫날 6만 8,209명의 승객을 운송하였다. 정식 개통되면 1일 평균 40만 2,700명의 승객을 운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렌북차그룹(大连北车集团)은 중국 국유자원 투자그룹과 스마트 도시 분야의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다렌 지하철에 WiFi를 설치해 열차 스마트 운행, 승차용 IC 카드 등을 시도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지하철 1호선 1기 프로젝트는 올해 6월 말 완성되며, 2기 프로젝트는 2016년 하반기에 정상운영 될 계획이다.

한편, 다렌시의 지하철은 다렌시의 철도교통(Dalian Rail Transit, DRT)의 일환으로 궤도 전차, 다렌인(大连人)호 경전철, 콰이궈(快轨)와 같이 지상과 지하를 포함한 교통 시스템을 이루는 수단으로 5월 기준 약 150.7km의 규모로 운행되고 있다. 이는 도시화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교통문제에 해결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교통수단별 환승이 편리하지 않으며 다렌시의 장점인 해운 운송수단과의 연결망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료원 : 大連新聞網, 大連天健網, 大連日報, KOTRA 다렌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조연교(다롄무역관)

2015-06-08

두바이, 환경을 생각한 대중교통의 변신

두바이의 도로교통시설과 법규 전반을 관리하는 도로교통국(Roads and Transport Authority, RTA)이 친환경 기술을 대중교통시스템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주차시설 관리, 도로 환경정비, 차량 등록과 관련 라이선스 발급뿐 아니라 육상 대중교통과 해상 대중교통의 운영·관리를 맡아온 RTA가 이번에는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이라는 정부 과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환경과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신기술 도입을 통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운용을 진행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RTA가 운영 중인 두바이 통합대중교통시스템은 중동지역에서 가장 안정되고 친환경적인 발전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두바이의 첫 번째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은 메트로이다. 두바이 메트로는 현재 6% 수준인 대중교통의 운송 부담률을 30%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및 신기술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수랭식 냉각장치를 이용한 전기 절약 △물을 사용하지 않는 객차 청소 등을 도입하여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다.

두 번째 친환경 교통수단은 그린버스이다. 그린버스는 식용오일과 디젤의 혼합체로 리터당 33%의 탄소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는 바이오 디젤로 운영되는 버스로, 현재 120여 대의 그린버스가 두바이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 그린버스에 △태양광 전지를 이용한 실내조명 △재활용 천을 활용한 의자 △재활용 타이어 △재활용 단열재를 사용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은 전기 운행식 아브라(Abra)이다.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진행된 전기 아브라 개발 계획에 따라 2010년 저 탄소배출 전기엔진을 장착한 아브라가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시범가동 이후 현재 12척이 관광객을 상대로 운행되고 있다.

두바이 도로교통국은 그간 시범적으로 운행해왔던 친환경 대중교통의 성공에 힘입어 앞으로 태양광 조명, 저공해 인테리어, 재활용 자재 사용을 의무 적용하여 다양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아부다비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으며, 두바이의 녹색경제 이니셔티브(Green Economy Initiative), 에너지 전략(Dubai Energy Strategy) 2030과 같은 정책 방향과 맞아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신기술 혹은 관련 장비 소개를 통해 두바이 대중교통 산업에 진출을 노력해야 한다.

자료원 : RTA, Minister of Energy, 걸프뉴스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박미진(두바이무역관)

2015-05-28

상하수도

세계 2위 물 부족 국가 요르단, 수처리 프로젝트 늘어나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르단에서 다양한 수처리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요르단은 최근 물 기근 국가 4위에서 2위로 열악해졌으며 국제 물 기근 기준선인 1인당 연간 물 사용량 1,000톤에 한참 못 미치는 연간 120톤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르단 수자원부가 밝힌 물 부족 악화의 원인은 약 14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의 급격한 유입이다. 시리아 난민이 유입됨에 따라 약 300만 명의 외국인인과 700만 명의 자국민구가 3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인 연간 8~9억 톤의 물을 공급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요르단 정부는 북부지역의 마프락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처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에는 '킹 압둘라 운하-이르비드 연결 프로젝트', '암만-자르카 파이프,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자르카-알 삼라하수처리장 파이프 개량 프로젝트'가 있다. 킹 압둘라 운하-이르비드 연결 프로젝트는 요르단 북부 야르묵 강에 있는 길이 110km가량의 킹 압둘라 운하와 북부 도시 이르비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약 3,000만 톤을 이르비드 자바다 저수지(Zabada Water Reservoir)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총 16개월에 걸쳐 8,500만 달러가 투자되는데 국제기구나 중동, 구미 등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암만-자르카 파이프,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암만의 아부 알란다 저수지(Abu

Alanda Reservoir)에서 자르카주 카우 저수지(Khaw Reservoir)까지 34km를 파이프를 연결하고, 두 저수지 간 385m의 낙차를 이용하여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현재 비용으로 추산된 4,800만 달러가 프랑스 개발청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지원받아 진행되며, 약 15개월이 소요되어 2016년 완공될 예정이다. 자르카-알 삼라하 수처리장 파이프 개량 프로젝트는 그동안 시리아 난민 유입으로 물 사용이 증가하면서 높아진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 하수관을 교체하는 공사로, 독일개발은행에서 총 4,5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진행되어 2015년 중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코오롱이 글로벌 암만 남부 하수처리장을 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하수처리장이 2017년에 완공되면 총 6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코오롱 사례를 포함하여 한국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지역 민원을 딛고 하수처리장을 완공한 경험이 요르단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에 따라 앞으로도 많은 한국 기업이 요르단을 비롯한 물 부족 신흥국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원 : 요르단 수자원부, 코오롱글로벌, KOTRA 암만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이민호(암만무역관)

2015-05-28

알제리 수자원 발전 계획

알제리 정부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물 기반시설(Water Infrastructure) 사업에 총 1조 4,800억 디나르(약 178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1만km² 경작지 관개망 구축사업, 12개 댐 건설, 해수담수화 플랜트, 하수망 사업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현재 알제리의 유효저수용량(Water Storage Capacity)을 75억m³에서 85억m³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제리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위해 총 376개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5개 댐 연결을 통한 베니 하론(Béni Haroun) 수력발전소(Hydraulic Complex) 확장, 세티프(Sétif) 고원 평야지역의 개발, 인살라(Aïn Salah), 타

만라세트(Tamanrasset) 수로 완공, 쇼트 엘 가비(Chott El Gharbi) 수로를 통한 틀렘센(Tlemcen) 남부, 나마(Naâma) 북부, 씨디벨아베스(Sidi Bel Abbès) 서부 도시로의 물 공급, 여러 식수도관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 12개의 댐 건설을 2016~2017년까지 완수할 예정이며, 아드라르(Adrar)주에는 수도 공급, 하수망 설치, 홍수예방 보호 시스템 강화, 농지의 관개사업 등을 위해 여러 수처리시설 건설과 포가라(Foggara: 북아프리카의 사막 지역에 분포하는 지하 수로식 관개 시설) 유지 활동을 실행하여 총 7만 7,148ha(771.48km²)의 관개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알제리 전역에 올해 20여 개의 신규 하수처리장 건설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300개의 하수처리장 가동을 목표하고 있다.

매년 90만 명가량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알제리로서는 제한된 수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수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아 관련 사업이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해당부문 관련 업체에게 좋은 진출 기회가 될 것이며, 특히 한국 기업들은 하천 정비 공사, 하수 처리장 설계 및 감리, 상수도 개선 사업 등 풍부한 현지 진출 경험이 있어 이 계획 추진 이후에도 진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 BMI, El Moudjahid 2015년 3월 22일 자 기사[Ressources en eau et développement durable, Garantir un accès durable à l'eau pour tous], El Moudjahid 2015년 4월 2일자 기사[300 stations d'épuration seront opérationnelles en 2025], Horizons 2015년 4월 3일자 기사[Un important programme pour la wilaya d'Adrar], KOTRA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오현택(알제리무역관)

2015-04-14

카타르, 척박한 사막을 촉촉하게

카타르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구와 사막기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자원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다. 카타르의 수자원 사용량은 유럽의 평균 수자원 사용량의 4배에 달하는 규모로 2015년에는 7억 5,200만m³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에는 현재의 150%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카타르 정부는 저수지 프로젝트 1단계로 2026년까지 담수화 시설을 확충하여 비상시 7일간 사용 가능

한 수자원 확보를 목표로 23억 갤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각 면 150m, 300m, 깊이 12m 규모의 저수지 24개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바라카(Um Baraka), 움 살랄(Um Salal), 라우다트 라쉬드(Rawdat Rashid), 아부 나클라(Abu Nakhla), 알투마마(Al-Thumama) 등 5개 지역에 24개의 저수지가 건설될 예정인데 이 저수지들은 650km의 대형 파이프라인으로 라스라판(Ras Laffan), 라스 아부 폰타스(Ras Abo Fontas) 등 총 7개의 담수시설과 연결될 예정이다.

저수지 프로젝트 2단계는 2036년까지의 카타르 수자원 수요에 맞추기 위한 준비로, 총 38억 갤런 규모의 저수지 40개를 신규 건설하게 된다. 현재는 담수시설 운용에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막대한 전력사용 문제는 카타르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활용한 발전소 설립을 통해 해결하고 있어 카타르 담수시설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은 과거 카타르 담수플랜트 관련 프로젝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줌에 따라 해당 우리 기업의 관련 분야 진출이 용이하며, 저수지 설립과 수자원 운송 네트워크 구축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관련 분야의 한국 기업은 상하수도 확충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료원 : Kahramaa, BMI, Peninsula, Doha News, Construction Week, KOTRA 도하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이용호(도하무역관)

2015-05-26

파라과이 수처리사업 현황 및 전망

파라과이 수처리사업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까르페스 정부는 취임 전부터 공약으로 낙후된 수처리 시설 구축을 내세우며 계획해왔지만, 2013년 취임 이후 법률 재정비, 재원 확보, 계획 수립 등으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4월 수처리 사업 발주처인 파라과이 수자원공사(ESSAP)는 '아순시온 수도권 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방식으로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 공고를 내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사업의 예상 규모는 4억 2,500만 달러

이며, 부족한 자원은 새로 도입된 민관협력법(PPP법)과 프로젝트파이낸싱법(PF법)에 따라 PF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파라과이 수자원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총 9개로 △아순시온 수도권 수처리시설 건설 사업 △산로렌소시(市) 및 아순시온 바라데로-벨라비스타 유역 하수시설 개보수-확장, 폐수처리 플랜트 건설 사업 △벨라비스타 및 이따으 유역 폐수처리 플랜트 건설 피해자 주민주택 건설 및 용지 매립 △알토빠라나주(州) 상수공급시설 및 하수처리 시설 건설 △유끄르 하천의 하수 및 폐수처리 종합 플랜트 건설 △빠게떼꾸에 상수처리 플랜트 건설 △떼비파르 하천에 상수처리 플랜트 2개 건설 △뜨리온포 항구에 상수처리 플랜트 건설 △안떼께라 항구에 상수처리 플랜트 건설이 있다.

9대 수처리사업 중 올해 발주가 유력한 사업은 산로렌소시(市) 및 아순시온 바라데로-벨라비스타 유역 하수시설 개보수-확장, 폐수처리 플랜트 건설사업으로 현재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차관이 확보되어 파라과이 국회 승인만 받으면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끄르 하천의 하수 및 폐수처리 종합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는 이타이푸(ITAIPU) 발전소의 재원으로 현재 엔지니어링 입찰이 진행 중이며, 알토빠라나주(州) 상수공급시설 및 하수처리 시설 건설은 연말에 입찰을 시작할 계획으로 현재 세부 계획 작성 단계에 있다.

파라과이 정부의 수처리사업은 추진 의지에 비해 재원 확보가 미진해, 정부는 임기 내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수처리사업 재원 확보 대부분을 PF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또 파라과이 국내기업은 아직 PF사업을 단독으로 참여할 역량이 부족해, 해외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파라과이 수자원공사는 이클레이 총회로 서울을 방문하였을 때 기후변화 프로젝트 플라자에 참가를 하는 등 한국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와 수주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라과이 수자원공사(ESSAP), 파라과이 수자원정책관리국(DAPSAN) 및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김대현(아순시온무역관)

2015-05-21

브라질 수처리 심각, 외국 기업에 절호의 기회

브라질의 수처리 사업은 2011년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PAC)의 일환으로 총 104억 헤알 투자가 계획됐으나 현재 총 491건 중 57.6%가 마비·중단·연기 중으로 전체의 22%만이 계획대로 건설 중이고, 완공된 프로젝트는 전체의 11.81%에 불과하다. 2013년 브라질 국가위생 정보시스템이 밝힌 바에 따르면, 브라질 인구의 51.4%가 하수집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61%는 하수처리를 경험한 적이 없고, 17.5%는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사 마비와 지체의 주요 원인은 관리, 경제, 계획안 부족 혹은 프로젝트 설계 미흡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민간기업의 위생산업 투자가 줄어들고, 현지 건설업체 중 다수가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에 연루되어 건설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하수처리 현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 다수의 시정부에서 20여 건의 수처리 관련 운영권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나 공공기업은 대부분 투자 여력이 없으며 민간기업도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외국 업체에 좋은 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회사 수에즈 인바이론먼트(Suez Environment)와 베올리아(Veolia)사는 브라질 하수 관련 공공산업 분야에 운영자·시공자 혹은 파트너로 진출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으며, 스페인 회사들도 관심을 나타냈다. 수에즈 인바이론먼트사는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시 및 브라질리아의 하수처리 시설을 건설한 바 있으며 페트로브라스, 발레(Vale)사의 산업용수 처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 수에즈 인바이론먼트는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입찰에 참가하거나 기존 브라질 업체를 인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베올리아 워터 테크놀로지(Veolia Water Technologies)사는 하수처리 기술 관련 사업과 공공하수처리 운영업체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도 브라질 수처리산업에 진출을 희망할 경우 브라질 시정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참여하거나 브라질 업체와 파트너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자료원 : 일간지 오 글로부(O Globo) 등 KOTR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채송화(리우데자네이루무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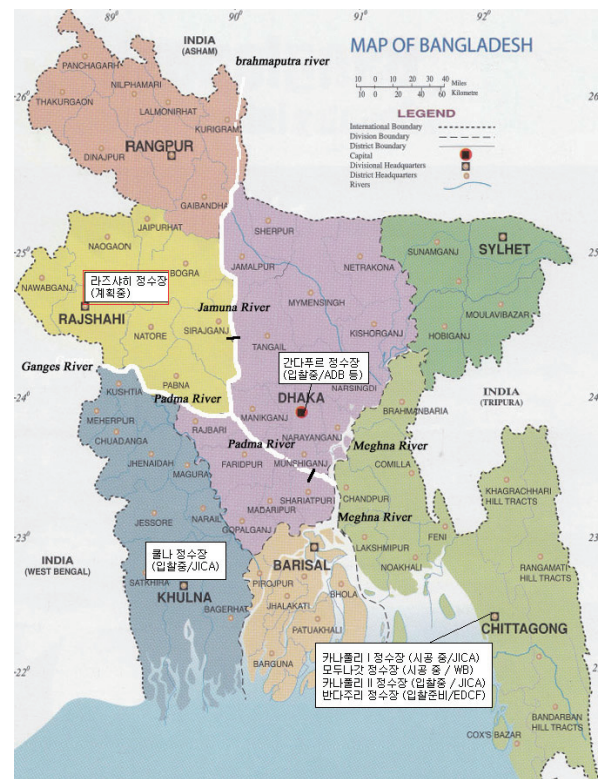
2015-05-21

방글라데시 상수도 프로젝트, 이제 북서지역으로

라즈샤히 지역에 145m³/일 규모의 정수장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개발이 낙후된 북서지역에도 정수장 건설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방글라데시는 전통적으로 강물과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해오다 2010년 이후 정수장을 포함한 현대식 상수공급이 시작되었다. 기존 상수원이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오염되면서 현대식 상수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주요 국제 원조기구들은 정수장 및 관로 건설 부문에 지원을 개시했다. 그러나 개발이 낙후된 북서지역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라즈샤히 상하수청 건설 사업이 북서지역의 첫 번째 대형 정수장 건설 사업이다.

인구 260만 명의 도시인 라즈샤히 지역에 생길 라즈샤히 정수장 건립은 2011년 라즈샤히 상하수청(RWASA)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어 현지 컨설팅사인 IVM(Institute of Water Medeling)사에 의해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상황이다.

그림3 방글라데시 정수장 프로젝트 현황



자료 : 방글라데시 투자청(BOI) 제공

사업예산은 50만 달러이지만 아직 자금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입찰 일정은 2015년 말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 공고가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자금이 정해지지 않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어 정부 자체 재원에 의한 사업수행 가능성보다는 원조자금 또는 국가관 차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현재 중국이 정부 간 사업(Government to Government, G2G) 형태로 참가하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미 코오롱건설(카나폴리 정수장), 태영건설(모두나갯 정수장)이 정수장 사업을 수주한 바 있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자금으로 사업(반다주리 정수장)이 추진되는 등 현지 수처리 부문에서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어 수주에는 유리한 여건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정부 차원의 원조사업(EDCF) 또는 한국 기업의 시공자금융조달 형태로 사업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다른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지나치게 낮은 입찰가를 제시했다가 결국 수주를 포기한 사례도 있어 입찰가 산정, 특히 현지 시공비(인건비 등) 산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 RWASA 인터뷰,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최원석(다카무역관)

2015-04-23

中 ‘수10조’, 수질개선시장 열린다

2015년 4월 16일, 중국 국무원이 오는 2020년까지 중국의 7대 중점 유역 수질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수질오염방지액션플랜’(水污染防治行動計劃, 이하 ‘액션플랜’)인 ‘수10조(水十條)’를 발표하였다. 수질오염방지액션플랜은 지난 2013년 4월 초안 작성을 시작으로 30차례의 수정작업을 거쳐 2년 만에 완성된 중국판 수질정화 장기 프로젝트로 수질개선 목표와 주요 지표를 확정, 10대 조치를 명시했다고 하여 ‘수10조(水十條)’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액션플랜은 중국 정부가 경제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해결과제이자 사회적 이슈인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10조(水十條)’에는 76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238개의 수질개선 조치가 포함되어있으며 그중 36개 항목은 환경보호부 주관하에, 나머지 40개는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재정부, 주택건설부 등이 참여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중국 ‘수10조’의 시행배경에는 70% 이상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7대 유역의 심각한 수질오염과 낮은 수자원 총량 문제가 있다. 중국은 수자원 보호의 최대 난제인 공업 오염수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오염수 배출원인 공장, 도시, 농촌, 항만 등에 대해 오염수 배출을 전면 통제하고 제지, 염색, 화공 등 오염물 배출이 많은 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창장(長江), 황허(黃河), 주강(珠江), 송화강(松花江), 화이허(淮河), 하이허(海河), 랴오허(遼河) 등 7대 유역 70% 이상의 수질을 정화처리하여 음용이 가능한 3등급 이상으로 개선한다는 구체적인 지표를 삼았다. 또한, 지하수 사용 비율을 줄이고 수질정화처리 수준을 제고, 정화처리를 거친 후의 재사용률을 높이고,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사용량을 현재의 60~70% 수준으로 낮출 것 등도 목표로 제시하였다.

△오염물 배출 전면 관리 및 환경보호 설비가 낙후하거나 오염수 배출이 많은 기업에 대한 정비 시행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수자원 보호 강조 △수질정화 및 물 절약형 기술의 발전 및 도입 △시장 역할의 활용 △환경보호 법률, 법규 정비 및 집행 강화 △물 자원 보호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 △물 생태계 복원 및 보강 △정부, 기업, 시민의 책임과 의무 명확화 △대중의 관리감독 수준 제고 등이다. 이 액션플랜은 중국 환경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질개선뿐 아니라 수질정화 설비 수요의 증가에 따른 가치창출, 일자리 부양 등 경기부양의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 환경보호부에서는 ‘수10조’ 사업으로 GDP가 5조 7,000억 위안 증가, 환경보호 산업에서만 1조 9,000억 위안의 새로운 가치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은 중국 각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 관련 기업들은 중국 수질개선 관련 정책의 출시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시장 동향을 분석한 후 진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 현지 기업의 오수처리,

수질개선 등 기술력 부족으로 중국 정부가 선진기술 및 수입설비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지역마다 기후·환경·경제발전 수준 등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설비 투자와 가격 산정, 중국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자료원 : 신화망(新華網),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김성애(베이징무역관)

2015-04-27